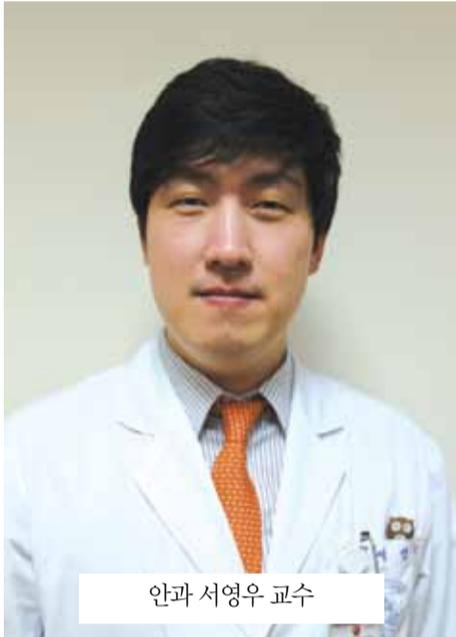




밤에는 밝은 빛도 공해 - 수면 및 인지기능 저하 / 눈피로 높여



정신건강의학과 이헌정 교수



안과 서영우 교수

밝은 빛으로 인한 빛공해가 단순한 ▲수면 양과 질을 낮추고 ▲인지기능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를 높이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가량은 '빛공해 방지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에너지 손실이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빛공해 연구팀(연구책임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은일 교수)이 5월 9일(금) 서울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2014년 (사)한국조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빛공해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환경부 "생활공감 환경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빛공해 인체위해성 평가기술연구(관리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를 실시한 것이다.

■ 수면의 양과 질이 현저히 저하

정신건강의학과 이헌정 교수가 빛공해와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해 연구한 결과 빛공해가 심해짐에 따라 야간수면의 양과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젊은 성인 남성 연구군 23명을 대상으로 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의 수면과 빛공해(5lux 또는 10lux)가 있는 방에서의 수면에 대한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여 현재 빛공해 침입광 기준인 10lux는 물론 5lux에서도 수면의 양과 질이 유의하게 떨어졌다.

분석 결과, 빛공해(5 lux 또는 10 lux)가 있는 방에서의 수면이 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의 수면보다 수면의 양과 질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빛공해가 있는 방에서의 수면이 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의 수면에 비하여 총수면시간(Total sleep time)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잠든 후 깬(Wake after sleep onset)이 유의하게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얇은 수면인 N1 단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깊은 수면인 N2 단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꿈 수면으로 알려진 REM(Rapid eye movement) 수면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빛공해가 수면의 양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인지기능수행에 부정적, 뇌활성도 저하

빛공해의 수면영향을 fMRI 연구를 통해 평가한 고려대 연구팀은 동일한 젊은 성인 남성 연구군 23명을 대상으로 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의 수면과 빛공해(5lux 또는 10lux)가 있는 방에서의 수면 후 다음날 인지기능수행을 평가하는 n-back test를 시행하면서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여 뇌의 활성도와 활성부위를 분석하여 5lux와 10lux에 의한 수면장애가 모두 다음날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빛공해(5lux 또는 10lux)가 있는 방에서의 수면이 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의 수면보다 뇌활성도를 저하시키고 이는 5lux보다 10lux 노출 시 더 뚜렷해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0 lux의 빛공해가 있는 방에서 수면을 취한 연구군이 5lux의 연구군에 비해 빛공해 전후의 뇌활성도 차이를 보였고, 좌뇌와 우뇌의 전두엽 부위의 뇌활성도 저하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보다 어려운 난이도의 수행을 하였을 때 이 같은 뇌활성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연구 결과를 통해, 빛공해 수면영향이 다음날 인지기능을 수행하는 뇌의 활성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눈 피로도 증가

안과 서영우 교수가 빛 노출이 눈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동일한 젊은 성인 남성 연구군 27명을 대상으로 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의 수면과 빛공해(5 lux 또는 10 lux)가 있는 방에서의 수면 후 각각 눈 피로도를 평가하여 비교 분석하여 5lux, 10lux 모두에서 눈피로도 증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의 수면했을 때 보다 빛공해(5 lux 또는 10 lux)가 있는 방에서의 수면 후에 눈 피로도가 증가하였다. 빛공해 노출 후 결막충혈 증가, 눈물막 파괴시간 감소로 인한 안구 건조 증가가 나타났으며, 눈 피로감, 눈 통증, 자극감, 초점 맞추기 어려움 등의 증상이 증가하였다. 눈 피로도 증상은 5 lux 와 10 lux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면 시 빛 노출을 피하는 것이 눈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빛공해 연구팀을 이끈 이은일 교수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빛공해 수준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발표로 인해 국민들의 빛공해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빛공해 조도 기준이 주거지역에서 10 lux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에서 5 lux에서도 수면장애등 건강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학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국제조명위원회나 독일의 기준처럼 소등 전과 소등 후를 나눠서 조도 기준을 정하고 소등 후는 1-2 lux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더불어 밝은 밤이 되어요 이화발전기금기부

14.01.20	조우성	₩ 1,500,000
14.01.24	이준문	₩ 1,000,000
14.02.07	윤애리	₩ 5,000,000
14.02.11	김연희	₩ 22,000,000
14.02.20	전병준	₩ 5,000,000
14.02.10	김덕우	₩ 5,000,000
14.01.16	최규진	₩ 1,000,000
14.01.16	김세현	₩ 1,000,000
14.01.15	민병두	₩ 7,000,000
14.01.20	김영조	₩ 10,000,000
14.03.23	정덕희	₩ 1,000,000
14.03.17	박철	₩ 10,000,000

14.03.14	전신권	₩ 10,000,000
14.03.12	신영기	₩ 500,000
14.03.14	의학부학부모	₩ 5,000,000
14.03.26	김민창	₩ 10,000,000
14.03.20	배은석	₩ 5,000,000
14.03.27	김종엽	₩ 5,000,000
14.03.27	덴티움	₩ 5,000,000
14.03.26	정금배	₩ 2,400,000
14.04.08	임재호	₩ 5,000,000
14.04.08	이성렬,김정운	₩ 20,000,000
14.04.08	김태연	₩ 1,000,000

14.03.22	최재욱	₩ 5,000,000
14.03.26	석림회장학금	₩ 12,459,000
14.03.26	의전원 학부모회	₩ 2,500,000
14.03.31	의과대학 38회 동의회	₩ 5,000,000
14.04.21	의대 교우회 장학금	₩ 58,352,211
14.04.29	박수완	₩ 10,000,000
14.04.29	등은상	₩ 6,000,000
14.05.08	홍정훈	₩ 20,000,000
14.05.12	이상달	₩ 5,000,000
14.05.14	이경욱	₩ 10,000,000
14.05.14	김기섭	₩ 10,000,000
14.05.19	이명주	₩ 3,600,000
14.05.19	(주)그래미	₩ 74,690,000
14.05.20	김원	₩ 5,000,000

김동식 교수는 황금의 손. 쓰바시바 - 간담췌외과 김동식 교수

[기획특집 1]



러시아 코디네이터 김옥사나, 아내 루아라 씨, 간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유리 씨, 수술을 집도한 김동식 교수, 러시아 코디네이터 김나영이 건강 회복과 퇴원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사람 유리 니빠리레에비치(68세, 男) 씨와 부인 루아라 씨는 김동식 교수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혀 감사하다는 뜻의 쓰바시바 쓰바시바를 연발했다. 러시아, 터키, 이스라엘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거부당한 시한부 인생이었다. 작년 말 이스라엘에서는 수술을 한다며 개복을 해놓고는 의료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그대로 배를 닫아버렸다. 한국의 김동식 교수는 유리 씨에겐 마지막 희망이었다.

간세포암 3기, 보통 간세포암이 10cm를 넘으면 거대간세포암이라고 하는데, 유리 씨의 간 뒤쪽에는 무려 13cm가 넘는 거대 간세포암이 달려있었고 횡경막까지 암세포가 침범해 있었다. CT로 확인해보니, 워낙 큰 암 덩어리 때문에 간이 반대편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을 정도였다. 처음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정도 크기는 아니었는데,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동안 암 세포가 점점 커져버렸다.

유리 씨는 2013년 9월 경 몸에 심한 피로감을 느껴 카자흐스탄에서 진료를 받던 중 초음파를 통해 간암을 발견했다. 카자흐스탄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유리 씨는 바로 터키의 유명 병원에도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보내 치료 여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치료가 어렵다. 간 이식을 받아라' 는 답변 뿐이었다.

고령의 나이 때문에 간이식은 위험하다는 판단에 유리 씨는 이스라엘 최고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고, 수술실에서 개복까지 했다. 하지만 감암 덩어리를 확인한 의료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며 그대로 배를 닫았다. 유리 씨로서는 사형선고나 같은 일이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의 김동식 교수가 간암 수술을 잘한다는 얘기를 소아외과 의사인 아들 듀라브 씨(43세)를 통해 전해들었다. 결국 올 해 4월 14일(월)에 한국에 입국했고, 23일

김동식 교수에게 '거대 간세포암 절제술' 을 받았다.

유리 씨의 '거대 간세포암 절제술' 은 간단하지 않았다. 혹 자체를 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간 세포암 환자는 간경변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원래 간 기능 자체가 매우 저하되어있다. 때문에 수술시 간을 과도하게 잘라내면 간 기능 부전으로 연결돼, 간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최대한 본인의 간을 보존하면서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했다.

특히, 유리 씨는 혹도 워낙 컸을 뿐만 아니라, 암이 대정맥을 누르고 있어 암 절제를 위해서는 세심하게 대정맥에서부터 암을 박리해내야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에서 한번 배를 열었다가 닫았기 때문에 배속에 흉터가 생겨 배속 장기들의 유착이 매우 심했다. 수술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분이었다.

다행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또 한번의 고비가 찾아왔다. 유리 씨와같은 고령환자의 경우 큰 수술을 받고나면 섬망증상이라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 씨의 경우는 이 섬망증상이 일주일가량 계속될 정도로 매우 심했다. 부인인 루아라 씨는 머나먼 타국에서 이 모든 순간을 눈물로 견뎌내야만 했다.

다행히 5월에 접어들던 지난주 목요일부터 유리 씨의 섬망이 사라졌다. 간 기능 역시 정상범위로 거의 돌아왔다.

유리 씨는 김동식 교수는 "황금의 손" 이라고 불렀다. 유리 씨는 "모두들 버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김동식 교수님은 평생의 은인이다. 수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모습에 그 동안 움츠러들었던 마음에도 평정을 찾을 수 있었다" 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동식 교수님을 낳아준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루아라 씨도 "한국의 사람들은 모두 너무 친절했다. 김동식 교수도, 전공의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편을 돌봐 준 간호사도,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전화통화를 했던 통역도 모두 친절했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왔다" 며 "우리 예쁘고 착한 며느리도 한국계 사람이다. 한국과의 깊은 인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김동식 교수는 "유리 씨와 같은 분은 이식을 하면 안되는 사람이다. 간암이 유리 씨정도 와 같이 아주 심한 사람은 이식을 하면 오히려 재발이 매우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절제가 최선이다" 며 "먼 길을 돌아오고,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겼지만 결국 잘 살아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 고 말했다.

더불어 "유리 씨의 치료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기에서만 아니라 고국에서도 잘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고 강조했다.

유리 씨는 5월 8일(목) 건강하게 퇴원했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에 오면 꼭 연락해달라" 며 김동식 교수에게 신신당부 했다. 🇰🇷

스웨덴 명문 카롤린스카대학 초청 받아 - 대장항문외과 김선한 교수

[기획특집 2]



대장항문외과 김선한 교수는 5월 5일(월) 세계최고의 의과대학중 하나인 스웨덴의 카롤린스카대학에 초청되어 직장암 로봇수술에 대한 강연 및 시연을 선보였다.

김선한 교수는 이미 2007년 8월부터 아시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대장 및 직장암 환자들에 대한 로봇수술을 직접 집도하고 외과 스텝과 전공의들의 교육과 수련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손꼽히는 미국의 메이요클리닉, 클리블랜드클리닉으로 직장암 로봇수술 라이브서저리(Live Surgery · 수술생중계)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이사장 및 대한외과로봇수술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선한 교수가 지난 메이요클리닉, 클리블랜드클리닉등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에 이어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에서 직장암 로봇 수술에 대한 시연을 한다는 것은 그의 술기가 로봇수술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넘어 이미 세계적으로도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강연은 직장암 로봇수술에 대한 강연과 수술시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선한 교수는 "직장암 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강경 직장암수술은 기술적으로 어려워 아직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보편화되어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스웨덴도 그런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번 초청은 그런 의미에서 복강경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들이 로봇의 섬세한 조작과 선명한 3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술법을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실제로 증명해준 시연이었다. 이번 직장암 로봇수술 표준화를 통해 전 세계의 보다 많은 환자들이 첨단 로봇수술의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카롤린스카 의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큰 의과대학 중 하나이자 스웨덴 최대 · 최고의 의학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스웨덴 전체 의학교육의 40%, 의학연구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1895년 알프레드 노벨이 카롤린스카 의대를 노벨상 선정기관으로 지명한 이후 노벨생리 · 의학상 후보자를 심사하고 최종결정하는 대학으로 명실상부한 전 세계 의학의 중심지로 손꼽힌다.

한편, 고대병원엔 로봇수술의 국제적인 경쟁력과 의료진들의 맨파워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술용 로봇 도입과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로봇수술센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신장염, 이렇게 관리하자! - 신장내과 김형규 교수

[건강정보 1]



신장내과 김형규 교수



지 못하므로 혈액 내에 쌓일 수 밖에 없다. 콩팥기능이 나빠질수록 혈중에 크레아티닌은 상승하게 된다. 참고로 크레아티닌의 정상치는 1.3mg% 이하이고 크레아티닌이 2.0mg% 이 넘으면 중증(3기)이라고 할 수 있다. 6mg%이 넘으면 피를 거르는 투석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콩팥기능이 나쁘다

▲ 신장염의 치료

신장염의 치료는 급성인 경우 대부분 증상적인 치료이다. 부종이 있으면 염분을 제한하고 심한 경우는 이뇨제를 사용하기도 하여 절대안정을 요하고 동반되어있는 상기도 감염을 치료해주어야 한다. 만약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소변 양이 감소하고 정신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발병 후 2~3주에 정상으로 회복되거나 드물게는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만성신장염인 경우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원인적인 치료는 안 되고 병의 진행을 완만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의 조절로 고혈압은 이 질환의 진행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염분을 제한하고 여러 약물을 사용하여 혈압을 조절해야 하며 신장기능이 저하된 경우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의 제한, 이뇨제의 사용, 비타민 공급 등이 필요하다.

▲ 저단백 식사

신장염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식사관리이다. 콩팥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여과기능이다. 여과의 주 목적은 대사관계 후 생성되는 대사산물과 노폐물은 내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만성신장염에서는 이러한 여과기능이 떨어져서 노폐물을 내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단백질이나 적혈구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따라서 노폐물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데, 저단백 식사는 바로 이 노폐물을 줄이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의 하나인 셈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에서 사용된 후 대사산물이나 찌꺼기(노폐물)의 형태로 배설된다. 그리고 이 노폐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 만성신장염 환자가 이러한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여 노폐물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면 이 각종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되어 일어나는 중독 증세인 요독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저단백 식사는 체중 1kg당 0.6g이하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36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실제 생선이나 고기의 무게로 따지면 80g의 무게에 해당된다. 저단백식사에서 단백질의 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단백질의 질이다. 아미노산중 일부는 콩과 같은 식물성단백에도 들어 있지만 필수아미노산은 우유나 계란에 풍부하다. 만약 만성신장염환자에게 저단백식사를 권한다면 하루에 생선 한 토막과 우유한잔, 계란 1개를 권할 수 있다.

▲ 크레아티닌을 확인하자

크레아티닌은 체내근육이 대사되어 생기는 대사산물이다. 그런데 이 크레아티닌이 콩팥기능을 알려주는 길잡이 노릇을 한다. 그것은 크레아티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크레아티닌은 음식이나 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순수하게 체내 근육에서만 만들어지므로 만들어지는 양이 일정하다. 또한, 콩팥을 통하여 100% 배설된다. 많은 대사산물이 콩팥을 통하여 배설되지만 크레아티닌처럼 사구체여과를 통하여 전량 배설되는 물질은 드물다.

콩팥의 기능이 나빠져서 사구체의 여과기능이 떨어지면 크레아티닌은 소변으로 배설되

고 곧바로 크레아티닌이 오르지 않는다. 사구체여과율이 50%이하로 떨어져도 크레아티닌은 정상이다. 그것은 우리 콩팥의 여유기능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여유기능을 다 쓴 이후에야 크레아티닌이 오르기 시작한다. 모든 환자가 크레아티닌을 측정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소변검사서 혈뇨나 단백뇨가 있다면 일 년에 한번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

▲ 고혈압이 동반된 신장염

신장염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체내의 염분 축적이나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인자들의 과다 생성 등의 원인으로 혈압이 오르고 이러한 이차적인 고혈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발 될 수 있다. 고혈압이 동반된 신장염이 위험한 이유는 고혈압이 사구체내의 염증에 의한 사구체 손상 정도를 악화시켜 신부전으로의 진행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심근 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만성신장염 환자의 혈압은 수축기 130mmHg, 확장기 80mmHg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철저한 고혈압 치료에 의한 신기능 보호효과는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신장염 환자일수록 더욱 뚜렷한데 일일 소변으로의 단백질 배설량이 1.0그램 이상인 환자에서는 그 목표 혈압치를 130/80mmHg 이하보다 더 낮게 유지할 것이 권장된다.

▲ 정기적인 관리

신장병은 정기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병이다. 우리가 먹는 모든 양은 복용 후 대사되어 배설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콩팥은 매우 중요한 배설기관이므로 먹는 약의 대사경로나 배설경로를 확실히 모른다면 불필요한 약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조심하여야 하는 약제로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 등이 있는데, 이들 약제들은 시장에 독성 작용이 있어서 신기능을 갑자기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한약재들도 상당한 신독성 작용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약제를 포함한 다른 약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사용여부와 사용용량 및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들어 CT나 MRI등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검사 전 신장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조영제는 신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65세 이상이거나 당뇨 또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라면 조영제 촬영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몸에 좋다고 한, 두가지 식품을 집중해서 먹으면 영양균형이 깨질 뿐만 아니라 콩팥에 부담이 된다. 고기는 생선으로 섭취하고 필수단백을 위하여 계란이나 우유를 섭취하며 가급적 육류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편식을 하지 않고 균형잡힌 식사를 챙겨먹는 것이 가장 좋은 음식이다. 그리고 더운 날이거나 땀을 많이 흘릴수록 운동을 할 때는 수분을 수시로 보충하는 것이 좋다. 특히 60세 이상,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탈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탈수는 콩팥기능악화의 주요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비뇨기과 강석호 교수, 국내 심포지움 초청 '로봇방광암' 라이브서저리 실시



독보적인 경력을 쌓고 있다.

비뇨기과 강석호 교수팀 (조석 교수, 강성구 교수, 천준 교수)이 국내 우수대학의 심포지움에 초청을 받아 '췌방광암 로봇수술' 라이브서저리를 실시했다. 강석호 교수는 지난 2007년말 처음으로 로봇 이용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55례의 수술을 기록하며 아시아 최다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총 체내 요로 전환술'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시키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어, 로봇 방광암 분야에서

요로전환술 (Robotic Radical Cystectomy with Totally Intracorporeal Urinary Diversion) 수술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수술시연 초청은 방광암 로봇수술 분야에서 아시아 최초, 최다 기록을 이어가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강석호 교수의 술기를 배우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강석호 교수는 방광암 수술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로봇수술을 개발해, 모든 단계의 방광암 수술을 로봇으로 실시하는 '로봇을 이용한 방광 절제술 및 총 체내 요로 전환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시켰고 최다 수술 기록을 유일하게 이어가고 있다. 또한, 강석호 교수는 2011~2012년에 전세계 방광암 수술의 메카로 존경받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 대학병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 Inderbir Gill 교수와 함께 로봇이용 총 체내 요로전환술 개발에 함께 참여한 바 있다.

비뇨기과 강석호 교수는 "방광암 수술은 단계 하나하나가 하나의 큰 수술이며 종양을 포함하여 주변 장기를 광범위하게 절제하고 또 새로운 방광을 재건해야하는 대수술이다. 개복수술이 아직까지는 표준치료이나 출혈, 합병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돕는 최소침습수술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방광암 췌단계 로봇수술은 그런 면에서 필요성이 매우 크고, 고령이 대부분인 방광암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술법이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난 4월 25일(금)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된 '제4회 전남비뇨기과 수술 심포지움(Radical Cystectomy Live Surgery)'에서 '로봇이용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총체내

이비인후과 진료협력 병·의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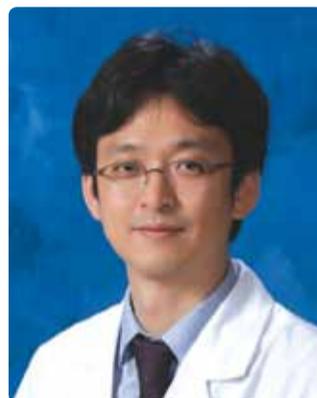


이비인후과(과장 백승국)와 진료협력센터가 5월 14일(수) 오후 7시 안암역 인근 식당에서 진료협력 병·의원장 초청 이비인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이비인후과의원 오병훈 원장, 정릉이비인후과 안병성 원장, 누기이비인후과 양선모 원장, 보아사이비인후과 이철희 원장 등 협력 병·의원 원장 22명이 참석하였고 고대병원 이비인후과 백승국 과장 외 의료진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외래에서 흔히 보는 코질환의 감별진단(이상학 이비인후과 교수)' 과 '메니에르병의 최신지견(임기정 이비인후과 교수)', '인후두역류질환(박민우 이비인후과 교수)' 등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비인후과관련 진료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협력 병·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및 진료의뢰 편의성 증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대장항문외과 곽정면 교수, 안센 학술상 신진연구자상 수상



고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곽정면 교수가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가 주최하는 APNM2014(Asian Postgraduate Course on Neurogastroenterology & Motility)에서 '안센 학술상 신진연구자상'을 수상하였다.

곽정면 교수는 2011년 고려대의료원 'Vision 2020 인재양성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서 우수 임상교원으로 선발되어,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 대장항문외과에서 1년간 연수하였다.

곽 교수는 연수기간동안 '전기 자극에 대한 대장 운동 반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을 '2013년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그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이번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곽정면 교수는 "소화기기능성질환의 병리기전을 밝히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제5회 장기이식인의 날' 개최



장기이식센터(센터장 김동식)가 장기이식받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장기이식센터는 지난 4월 26일(토) '제5회 장기이식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으며, 심장,신장,간 등 장기이식 받은 환자와 가족을 비롯해 의료진 및 코디네이터, 통역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걷고,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걷기와 ▲강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9시 반, 고려대학교에서 모여 고대 투어 및 개운산 등반을 실시했다. 오랜만에 만난 의료진과 환자들은 서로 가족처럼 반가워하며 안부를 물었다. 특히, 장기이식인의 날이 5회를 맞이하는 만큼 환자들끼리도 서로 친한 친구처럼 가깝게 인사를 하고 소식을 물었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평소 건강상태는 물론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손 끝에 날아든 美의 향기



친절리더가 5월 8일(목)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美의향기(매니큐어) 행사를 진행했다. 효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환자 및 보호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병원을 찾아주신 어르신들에게 손 마사지를 해드리고 매니큐어를 발라드리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친절리더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환자와 함께, 환자의 편에서 - 연세내과의원 정일화 원장

[협력병의원 인터뷰]



연세내과의원 정일화 원장



연세내과의원 내부

2001년 강북구 미아동에 개원해 한 자리를 15년여 간 굳건히 지키는 병원이 있다. 처음에 다니던 환자들은 이사 간 후에 강남에서까지 찾아온다는 연세내과의원. 환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는 것이 오히려 의사를 위한 일이라는 연세내과의원 정일화 원장을 소개한다.

▲ 오전 8시 30분 진료시작, 토요일 진료 환자 생각하면 멈출 수 없죠

정 원장은 1993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 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2001년 강북구 미아동에 '연세내과의원' 을 개원했다. 연세내과의원은 이때부터 아침 8시 30분에 오전 진료를 시작하고, 토요일에서 평일과 다름없이 진료를 진행한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이나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찍 오전진료를 시작하고, 주말에도 진료를 거르지 않는 것. 때문에 1년 중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언제나 부담없이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내가치료할지, 큰 병원 보낼지 정확한 판단이 환자를 위한 것

어느 날 복통을 호소하는 초진환자가 병원을 찾아와 내시경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다. 정일화 원장은 환자의 여러 상태를 종합해본 결과 복통이 심하지 않음을 느끼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했고, 이 환자는 대동맥박리라는 응급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 정 원장은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자칫 본인이 내시경을 하겠다고 실시했으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다.

반면, 한번은 배가 아프다고 찾아온 아침 일찍 찾아온 환자에게 내시경을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냥 돌려보냈는데, 외래 마칠 때쯤 다시 전화를 걸어 증상이 어떠신지 문의했더니 말씀히 나왔으며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해했다고 한다.

정일화 원장은 이런 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 환자에게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믿음으로 진료를 할 수 있고, 환자도 치료 결과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진환자일수록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빠른 회신, 친절한 진료의뢰센터 믿고 환자 의뢰하는 고대병원

고대병원은 인근에 가장 가까운 대형병원이기도 하지만 고대병원에 환자를 보내면 진료의뢰센터에서 다시 환자의 상태를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고, 더불어 환자의 중증진료가 마무리되면 다시 환자를 의뢰병원으로 돌려주는 점이 좋다고 한다. 때문에 환자가 고대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다시 왔을 때 상태와 치료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더불어 몇몇 환자들이 불친절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다가 길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료의뢰센터를 통해 친절하고 빠른 진료를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마시고 가시라고 설명드리면, 믿고 따라주시고, 또 실제로 친절하게 진료를 받고 고대병원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욱 믿고 고대병원에 환자를 의뢰하게 된다고 한다.

정일화 원장은 "지역사회의 1차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필요한 검사 및 처치가 필요해서 전원을 하면, 이후 빠른 검사 및 정확한 처치가 이루어지고 환자가 안정을 찾으면 다시 1차 병원에 신속하게 보내주는 의료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고, 의사 역시 본인의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 고 강조하며 "환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연세내과의원과 고대병원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

연세내과의원 정일화 원장

주소 :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 887-5 2층
전화번호 : 02-981-8275

유방암 고통 다시 느끼지 않으려면 - 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

[건강정보 2]



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 교수

대표적인 여성 암인 유방암은 서구에서는 여성에게 생기는 암 중 제일 높은 발병률과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이고 국내에서도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암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의학 발전과 검진의 대중화로 팔복할 만한 암 치료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따르면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64.1%에 달하고 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전체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1%로 미국은 물론 일본·캐나다 등 의료 선진국보다 더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어 유방암 치료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의로서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통계 수치 이면에는 유방암 환자들의 눈물과 애환이 숨어 있다. 유방은 말 그대로 여성성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암으로 유방을 수술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모양 변형과 수술 자국, 유방의 상실 등으로 유방암 생존자들은 신체적·심리적 고

통을 느끼게 된다. 또한 유방암 수술 후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항호르몬치료 등의 보조 요법으로 짧게는 반년 길게는 5년간을 치료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많은 수의 환자들은 이 5년간의 치료가 끝난 후 한숨을 돌리게 된다. 대부분의 암은 5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 재발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완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유방암의 경우에는 5년 이후에도 재발위험이 존재한다. 진료실에서 치료가 종료된 지 10년 후 심지어는 20년 뒤에 재발한 환자도 있다. 이 환자들에게 다시 힘든 암치료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할 때면 입이 쉽게 열리지 않고 의학의 한계와 의료진의 부족함에 마음이 무겁다.

젊은 여성일수록 유방암의 재발확률이 높으며 특히 5년 이후 장기 재발위험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한국 유방암 환자들은 특징은 서구에 비해 평균연령이 낮고 젊은 환자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장기 재발확률도 서양 환자들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치료 경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호르몬 수용체 양성암의 경우 치료 후 5년 이후에는 호르몬 수용체 음성암에 비해 재발 위험률이 높아 일부 재발 고위험군의 경우 5년 치료 종료 후에도 보조 항호르몬치료를 추가로 복용하는 연장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부 암 생존자의 경우 암에 대한 공포나 치료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찾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과 식이요법에 치중하다 암이 재발 돼 상당히 진행된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 5년 치료 종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고려대학교병원 진료시간표

과 별	의 사 명	오전	오후	전 문 진 료 과 목	과 별	의 사 명	오전	오후	전 문 진 료 과 목				
소화기 센 터 3층 ☎6551	*류 호 상	화,목	화,목	위장관질환,간질환	호흡기내과 2층 ☎5111	*인 광 호	월,수,목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김 창 덕	수,금	월,목	담석,담도암,췌장염,췌장암		*이 상 업	월,화	화,수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엄 순 호	월,수,금	수	간질환(간염,간경변,간암)		*이 은 주	금	월,목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전 훈 재	화,목,금	금	위장관양성질환,식도암,위암,대장암		정 원 재		화,금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이 흥 식	월,화,목		담석,담도암,췌장염,췌장암,위장관질환	흉부외과 2층 ☎5436	*김 광 택	화,목		폐,기관지,식도외과,다한증,하지정맥류				
	*진 윤 태	수,금	화	위장관양성질환,식도암,위암,대장암		*선 경	수		심장,혈관외과,인공심장 (수오전:홀수 주 진료)				
	*서 연 석	월,목,토	월,금	간질환(간염,간경변,간암) [토오전:2주]		신 재 승	수		관상동맥,대동맥,심부전,판막질환 (수오전:짝수 주 진료)				
	*금 보 라	월	수,목	위장관양성질환,식도암,위암,대장암		*이 성 호		화,목	흉곽기형,폐,식도질환,하지정맥류				
	*김 은 선	수	월,금	위장관질환		*손 호 성	월,금		심장(관상동맥,판막),혈관질환,심장이식				
	*최 혁 순		화,목	위장관질환		*정 재 승		수,금	대동맥,관상동맥,말초혈관질환,심장판막,심장이식				
	*임 선 영	토	화,수,목	간질환(간염,간경변,간암) [토오전:3주]		*김 희 중		월,금	심장 혈관질환				
	정 창 호			위장관질환 [토오전:1주]		외과 3층 ☎5401	위장관	*김 종 석	수	월	위암,상부위장관질환		
	김 승 한	토		위장관질환 [토오전:2주]				*박 성 흥	화	목	위암,상부위장관질환		
	이 재 민	토		위장관질환 [토오전:3주]				*박 성 수	금	수	위암,상부위장관질환		
남 승 주	토		위장관질환 [토오전:4주]	간담체	*서 성 옥		월,수		간,담도,췌장질환				
유 인 경	토		위장관질환 [토오전:5주]		*김 동 식		화,금		간,담도,췌장질환,간이식				
내과 3층 ☎5410	신장	*김 형 규	월,금		화		고혈압,신장질환	*유 영 동	목	월	간,담도,췌장질환		
		*조 원 용	수,금		월,수		고혈압,신장질환	정 성 원		화,금	간,담도,췌장질환		
		*조 상 경	화,목	수,목	고혈압,신장질환		대장문	*김 선 한		월,수	대장,직장,항문질환		
		*김 명 규	월	화	고혈압,신장질환			*김 진	금	화	대장,직장,항문질환		
		김 선 철	화	금	고혈압,신장질환			*곽 정 면	월,목		대장,직장,항문질환		
	장 효 정		월,목	고혈압,신장질환	이식관			*박 관 태	해외파견:몽골		장기이식(신장,췌장),혈관질환,하지정맥류		
	*김 명 규	수		신장이식			*정 철 웅	화	목	장기이식(신장,췌장),혈관질환,췌장질환,하지정맥류			
	*김 민 자	수,금	월	감염질환,림프절클리닉,열병클리닉			*전 흥 만	월,금		혈관질환,하지정맥류,장기이식(신장,췌장)			
	*손 장 옥	월,목	화	감염질환,림프절클리닉,열병클리닉	소아 화과		*부 윤 정	수,목	화	소아외과,탈장(수오전:소아청소년과)			
	*윤 영 경	화	수,금	감염질환,림프절클리닉,열병클리닉		유방센터 (유방내분비 외과) 2층 ☎6670	*배 정 원	연구년		유방암 및 갑상선 질환			
	*백 승 희	목	목	감염질환,림프절클리닉,열병클리닉	*정 승 필		월,금	월,화	유방 및 갑상선 질환				
	혈액	*박 용	목		빈혈,자반증(명)클리닉		이혜윤	화,수,목	금	유방 및 갑상선 질환			
		김 정 선		금	빈혈,자반증(명)클리닉			*채 인 정	목	화	무릎,인공무릎관절,관절경,척추 (목오후:3~5시 block만 시술)		
	류마 티스	*지 종 대	목,금	월,수,금	관절염,류마티스,루프스			*이 순 혁	수	월	소아정형외과,사지연장술,족부		
*이 영 호		월,화,수	화,목	관절염,류마티스,루프스	*박 종 훈			화		종양(수오전 암센터 진료)			
내과 일반의				월~금	월,화,수,금		내과질환			*서 승 우	화		척추측만증,소아척추
당노센터 (내분비내과) 3층 ☎5421	*김 신 곤	월,수	수	내분비	정형외과 3층 ☎5430		*한 승 범	월,목	목	인공관절(무릎,고관절),고관절골절,외상			
	*김 희 영	화,금	월,수	내분비			*정 응 교	연구년		어깨,팔꿈치,스포츠의학(상지)			
	안 지 현	월,목		내분비			*박 시 영	화,수	월,수	허리,목디스크,척추협착증,골다공증,외상학, 외상성 척추질환,척추측만증 및 변형 교정 (화요일:11시 이후)			
	*김 남 훈	금	화,목	내분비			*이 대 희	화,토	목	무릎(인대,연골파열),스포츠의학(하지) [토오전:1,4주]			
	김 선 화	월,금		내분비			*강 종 우	토	화,금	외상,수부질환,손목,팔꿈치, 체외충격파치료(상지) [토오전:3,5주]			
암 센터 2층 ☎558106	종양 혈액 내과	*김 열 흥		월,목	위암,소화기암,항암치료		신경외과 3층 ☎5550	*박 지 순	월,금,토	수	어깨 질환,초음파클리닉(어깨)[토오전:2주]		
		*신 상 원	수,목,금	화	두경부암,폐암,호스피스			*박 성 철		금	고관절,무릎,외상		
		*김 병 수	화,금		혈액암(백혈병,림프종,다발성골수종)골수이식, 혈액질환	일 반 의			수,금	외상			
		박 용	월		혈액암(백혈병,림프종,다발성골수종)골수이식, 혈액질환	성형외과 3층 ☎5440		*서 중 근	화,목	수	척추질환,척추외상		
		최 윤 지	월,목	화	고형암의 항암화학치료			*정 용 구	수,목	화	뇌종양,척추종양,뇌혈관질환,두통		
		김 정 선		화,수	혈액암(백혈병,림프종,다발성골수종)골수이식, 혈액질환			*박 정 울	월	월,목	통증외과,척추질환,간질,운동장애		
		장 원 진	화	수,금	고형암의 항암화학치료			*조 태 형	수		척추질환,척추외상,줄기세포치료		
	방사선 종양학과	*김 철 용	화,목,금	월,목	소화기암,두경부암,유방암			*강 신 혁	월	목	뇌종양,소아뇌질환,뇌혈관질환,두통,안면경련		
		*박 영 제	화,수	월,화,수,목	뇌종양,부인암,비뇨기암,폐암,림프종,소아종양,육종			*이 장 보		화	척추질환,척추외상		
		이 남 권	월,수	화,수,금	방사선 종양학			*박 동 혁		월,수	뇌혈관질환,안면경련,삼차신경통,두부외상		
	일 반 의		화,금	종양학	심혈관 센터 4층 ☎6700			순환기	*박 경 재	화,금		뇌혈관 조영술 및 뇌 두경부 중재시술, 뇌혈관 질환(뇌동맥류),뇌종양,안면경련, 삼차신경통	
	정형외과	*박 종 훈	수						종양	허 준 석		금	척추질환,두부외상
	소아청소년과	*이 광 철		화					소아혈액종양	*박 철		월,금	귀성형,소이증,매몰귀
	심혈관 센터 4층 ☎6700	순환기	*심 완 주	월,목					화,수	고혈압,협심증,심부전,심장판막질환 (수요일은 초진만)	안 덕 선		수
*김 영 훈			화,금	화,금			부정맥,심박동기&제세동기[토오전:4주]		*박 승 하	금	화	소아기형,안면마비,레이저수술,턱성형, 눈성형,보톡스,필러	
*임 도 선			월,화,수	월			협심증,심혈관중재시술(화오전:초진만)		*이 병 일	월,수		미용성형,유방재건,안면재건,미세수술	
*박 상 원			수,목	월			부정맥,심박동기&제세동기[토오전:5주]		*윤 을 식	화,목		유방재건및성형,지방성형,눈,코, 주름성형,수부재건,암재건,레이저	
*유 철 웅			월,수,목,토	수		협심증,고지혈증,심혈관중재시술, 말초혈관(목:말초혈관 초진만/토:초진만) [토오전:1주]	김 현 석		월	목	악안면외상재건,수부외상재건,눈성형, 지방성형,흉터성형,피부암		
*홍 순 준			목	화,목		협심증,고지혈증,심혈관중재시술	유 희 진			수,금	악안면외상재건,수부외상,화상,피부미용, 레이저,피부암		
*박 성 미			화,수,금,토	수		고혈압,협심증,심부전,심장판막질환 (수오전,토요일은 초진만) [토오전:2,4주]	일 반 의		수,금	월,화,목	외상		
*박 재 형			금	수,금		협심증,고지혈증,심혈관중재시술							
*심 재 민			월,금	화		부정맥,심박동기&제세동기,실신,급사[토오전:3주]							
김 미 나			수	금		심장질환,심장이식,고혈압,심부전,심장판막질환							
이 대 인			화	금		심장질환,고혈압,심부전,심장판막질환							
김 수 아				월,목	심장질환,고혈압,심부전,심장판막질환								
주 형 준				목	협심증,고지혈증,심혈관중재시술,고혈압								
노 승 영				목	심장질환,고혈압,심부전,심장판막질환								
특수 클리닉	고혈압,심부전클리닉			심완주,박성미,김미나,김수아									
	부정맥클리닉,인공심박동기&제세동기클리닉			김영훈,박상원,심재민,이대인,노승영									
	흉통클리닉			임도선,유철웅,홍순준,안철민,박재형,주형준									
대동맥 및 말초혈관질환 클리닉			유철웅										

* 선택진료 의사 | 대표번호·전화예약 1577-0083 | 인터넷 예약 http://anam.kumc.or.kr | 응급의료센터 02)920-5373 2014년 5월 15일 현재

과 별	의 사 명	오전	오후	전 문 진 료 과 목	과 별	의 사 명	오전	오후	전 문 진 료 과 목		
소아 청소년과 3층 ☎5650	*손 창 성	안식년		소아심장질환,신생아	피부과 2층 ☎5470	*계 영 철	월,화,목	화	건선,탈모,아토피,레이저		
	*박 상 희	화,금	수	청소년질환,소아위장관질환		*안 효 현	수,금,토	목,금	아토피,백반증,레이저 [토오전:2주]		
	*정 지 태	화,금	월	만성기침,가려움증		서 수 흥	화,금	수	피부암,백반증,레이저		
	*이 광 철	월,목	목	백혈병,빈혈,혈액질환,대사질환		유 화 정	월,목		피부미용,레이저,여드름 [토오전:5주]		
	*이 기 형	월,토	월,수,목	소아내분비질환(성장장애,성조숙증,갑상선질환,비만,소아당뇨) [토오전:3주]		최 재 은	수,토	월,화,목	여드름,아토피,레이저		
	*유 영	월,수	화,금	소아호흡기,천식,아토피,알레르기	일 반 의		월,금	일반피부과학			
	이 윤	월	수,목,토	소아위장관질환,소아간및췌장질환,소아영양,소아내시경 [토오전:1주]	비뇨기과 2층 ☎5530	*김 제 종	수,금	수	남성과학,불임,전립선비대증		
	*이 은 희	토	화,목,금	미숙아,고위험신생아,신생아질환 [토오전:3주]		*이 정 구	월,목	월	배뇨장애,요실금,전립선비대증		
	변 정 혜	목,토	화,금	경련,두통,발달장애,어지럼증,수면장애 [토오전:4주]		*천 준	화	화,목	종양학,전립선암,로봇-복강경수술		
	백 준 우	화,금,토		소아내분비질환(성장장애,성조숙증,갑상선질환,비만,소아당뇨)[토오전:2,5주]		*강 석 호	월	수	종양학,로봇-복강경수술		
부 윤 정	수		소아탈장,선천성기형,소아항문질환	*강 성 구			화,목	내 비뇨기과학(요로결석),종양학,로봇-복강경수술			
일 반 의	화,목	화,목	예방접종(오전 10:30~11:30 오후 14:30~15:30)	조 석		금	일반비뇨기과학,요로결석				
소아 클리닉	소아심장질환/심장초음파: 하기수(금오후/심장초음파실)				재 활 의학과 2층 ☎6470	*권 희 규	월,수,금		전기진단,뇌성마비,척추손상		
	소아신장질환: 임형은(수오후:2,4주)					*강 윤 규	화,금	월,목	통증,관절염		
	두통: 변정혜(수오후:1,3,5주)					*편 성 범	수,목	화	뇌질환재활,인지장애(소아성인),연하(삼킴)장애		
	소아내분비질환(성장장애,성조숙증,갑상선질환,비만,소아당뇨):남효경(화오후:1,3주)					윤 형 석	금	수	근골격계질환,심폐재활,일반재활의학		
안과 2층 ☎5520	*김 효 명	화		백내장클리닉,각막클리닉,근시교정 클리닉	문 헌 임	분만휴가			림프부종,척추손상,일반재활의학		
	*오 재 령	월,수		망막 클리닉,유리체(월오후:레이저환자만)		최 태 응		월,화,수	근골격계질환,일반재활의학		
	*유 정 권	금	화,수	녹내장 클리닉,백내장		일 반 의	화	수,금	일반재활의학		
	*서 영 우	목	월,화	사시,약시,안성형		치과 2층 ☎5423	*권 종 진	월	화	구강외과	
	이 화		금	성형안과(눈물질환,외안,종양,갑상선,안검하수),미용성형(쌍꺼풀,눈썹치킴교정),주름제거(레이저,보톡스,필러주입)			*류 재 준	목,금	월,목,금	보철과	
	임 재 원	수	목,금	백내장,각막,근시교정,망막질환	전 경 아		화,목,금	월,화,목	보존과		
	엄 영 섭	목		백내장,각막,근시교정	최 연 조		화,수,목	화,수,금	보철과		
	안 소 은	목	월	망막 클리닉	전 상 호	화,금	월,화,수	구강외과			
	일 반 의		수,목,금	안과 일반학	*지 숙	월,화,목,금	목,금	치주과			
가 정 의학과 2층 ☎5104	*조 경 환	월,수,금		노인학,골다공증,만성질환,호스피스	김 예 진	월,수,토	월,수,목,금	교정과 [토오전:격주(2,4주)]			
	김 양 현	목	월,목	금연,대사증후군,비만,건강증진	송 인 석	월,화,수	수,금	구강외과			
	한 병 덕	화,금	화,수	노인병,여행의학,건강증진(비만,피로,노화)	이 언 화	월,화,목~토	화,목	[토오전:격주(2,4주)]			
	김 현 진	월,수	화,금		일 반 의	월,수~금	월~금				
	일 반 의	월~금	월~금	신체검사,건강상담,성인예방접종	이 비 인 후 과 2층 ☎5485	*정 학 현	안식년:2014년 8월까지		만성중이염,소아 이비인후과,어지럼증		
정신건강 의학과 2층 ☎5505	*이 민 수	월,수,목	수	우울증,치매,조현병		*임 기 정	월,화,금,토	금	인공와우,만성중이염,어지럼증,보청기		
	*김 린	화	월,화,목	수면장애,적응장애,조현병		안 윤 숙	수	월,수,목	어지럼증,보청기,난청,인공와우,만성중이염		
	*함 병 주	해외연수:2014년 8월까지		우울증,불안장애,조현병		코 - 알 레 르 기	*이 상 학	월,수,토	월	알레르기,후각,코성형,부비동염,비부비동종양 [토오전:4주]	
	*이 현 정	화,수,목	화	조울증,수면장애,조현병			*김 태 훈	목	화,목	코성형,알레르기,축농증수술,비부비동 종양 [토오전:2주]	
	조 철 현	금,토	화,목	일반정신의학 [토오전:1,3주]			국 진 호	화,금	금	알레르기,후각,코성형,부비동염[토오전:5주]	
	원 은 수	화,토	월,금	일반정신의학 [토오전:2,4주]		두 경 부 - 갑 상 선	*정 광 윤	화	목	두경부종양,음성장애,편도질환	
일 반 의	월수목금토	월,수,금	일반정신의학	*백 승 국	수,토		월,수	두경부암 (후두암,구강암,편도암,인두암,경부종물)			
신경과 2층 ☎5510	*박 건 우	화,목		신경변성질환 임상연구 클리닉(화,목 9시-11시)	박 민 우		목,금		두경부,음성장애,연하장애[토오전:3주]		
	*김 병 조	월,수	화	다발성경화증,말초신경질환,척추·근육질환	일 반 의		월	화	편도질환,연하장애		
	*유 성 옥	화,목	월	뇌졸중,뇌혈관질환,어지럼증	영 상 의 학 과 3층 ☎5571		*김 윤 환	월,화,목,금	월,화,목	일반이비인후과학	
	*조 경 희	월,금	수	뇌졸중,어지럼증,두통			*조 성 범	월,수,금	월,수,금	간암 및 혈관 인터벤션시술	
	*이 찬 녕	수,금	목,금	파킨슨병,운동장애,치매,기억장애			*김 병 준	월,수,금	금	뇌혈관조영술 및 뇌두경부 중재시술, 뇌두경부 신경중재치료,신경두경부 영상의학	
	*강 봉 수	화	월,금	간질(뇌전증),실신,뇌염,두통,어지럼증[토오전:4주]		이 남 준	안식년			뇌혈관조영술 및 뇌두경부 중재시술	
	구 용 서	월	목	간질(뇌전증),수면장애,두통[토오전:3주]		*조 태 형	월			척추질환,척추외상,줄기세포치료	
석 흥 열	목	월,수	말초신경질환,근육질환,신경과질환[토오전:2주]	*이 장 보		목			척추질환,척추외상		
일 반 의	금	월~금	신경과질환	*이 상 현		월,화,수,목	화,수		척추디스크,관절염,어깨통증 (화,수오전 신래,초진만)		
산부인과 2층 ☎5450	*김 탁	월,목	화	폐경기관리,골반경수술,자궁근종,난소종양	척 추 센터 3층	*박 시 영		화	허리,목디스크,척추협착증,골다공증,외상학,외상성 척추질환,척추축만증 및 변형 교정		
	*홍 순 철	화,목	월	산과,임신중 약물상담,고위험 임신클리닉		*이 혜 원	월,목			통증관리	
	*박 현 태	월,수,금	수	불임,난임,자궁내막증,월경이상,자궁근종,난소혹,폐경기,골다공증 로봇수술		*박 수 영	화,금	월,화,수,금		통증관리	
	*안 기 훈	수,금,토	금	산과,임신중약물상담,고위험임신클리닉[토오전:매주]		통 증 센터 3층 ☎5529	외국인 진료센터 ☎5677	이 희 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소아과 질환
	*이 상 훈	화	목,금	부인암(자궁경부암,난소암,내막암),로봇수술,젊은암환자가입력보존				김 진 용		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장 향 용		월,목	부인과,생식내분비,복강경수술				통 합 의 학 센터 ☎6930	이 성 재	금	화,수,목
염 선 경		화,수	산과,일반 부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병원홈페이지) 제증명 발급안내 ▶진료비납입확인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재원확인서 = 병원홈페이지(http://anam.ku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범용 공인인증서(유료) 사용,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 또는 보험회사제출용만 무료)】 발급 가능. ▶외래예약 ▶전화예약 1577-0083 (콜센터) ▶대표전화: 920-5114 ▶인터넷예약 http://anam.kumc.or.kr ▶응급센터: 920-5373 ▶요양급여안내 ▶우리병원에서 오실 때에는 1단계요양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시하셔야 보험적용이 됩니다. ▶응급의료센터, 가정의학과, 치과, 분만 및 혈우병환자는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합니다. ▶선택진료(지정진료)제도 ▶선택진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경우 선택진료에 관한 규제가 의거 환자본인이 별도로 추가비용 전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예약진료 시 사정에 따라 진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반 의	월,화,목	화,수,목,금	일반산부인과								
갑상선센터 1층	*배 정 원	안식년		갑상선암							
	*정 광 윤	목,금	화	갑상선암(내시경,로봇수술),부갑상선종양							
	*백 승 국	월		갑상선암							
	*김 훈 업	수	월,목	갑상선암(로봇갑상선수술),부갑상선종양,부신종양							
	박 민 우		금	갑상선암							
	곽 희 용	화	수	갑상선암							
	*김 신 곤		월,화	갑상선기능항진증,저하증,결절 및 암							
	*김 희 영	수,목		갑상선기능항진증,저하증,결절 및 암							
	안 지 현		수,목	갑상선기능항진증,저하증,결절 및 암							
	*김 남 훈	화		갑상선기능항진증,저하증,결절 및 암							
김 선 화	월		갑상선기능항진증,저하증,결절 및 암								
김 경 진	금		갑상선기능항진증,저하증,결절 및 암								

"잘 먹고 잘 싸는 아이, 정말 예쁘죠"

[우리아이 주치의 2]

소아청소년과 이윤 교수



"사선을 오가던 아이가 멀쩡한 얼굴로 인사하며 퇴원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래서 의사를 하는구나 싶다"는 이윤(37)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국내에 많지 않은 소아 내시경 전문가다. "아이가 좋아서 소아 의사가 됐다"는 이 교수는 배 아프다던 아이들이 치료받고 시원하게 똥을 누면 "그 똥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며 웃는다.

▲ 10kg 넘으면 어른 용으로도 가능

돌 된 아기에게 웬 내시경인가 싶지만, 소아에게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의외로 많다. 자꾸 배가 아프거나 자주 토하거나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거나 토사물이나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내시경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어른도 싫은 내시경을 자식에게 시키기 꺼려하는 부모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때때로 진단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아이의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약을 잘 조절하고, 검사 중 아이의 다양한 반응과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소아 내시경 전문의에게 검사 받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작은 영아에게 위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지름이 6mm 정도밖에 안 되는 가는 관을 쓴다. 어른의 콧구멍에도 삽입할 수 있는 굵기다. 요즘은 어른용 위 내시경도 지름이 9mm 정도로 가늘어 아이 몸무게가 10kg만 넘으면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장 내시경은 보통 위내시경보다 약간 더 길고 굵다고 보면 된다.

소화관 깊숙이 들어가는 만큼 내시경은 아무리 소아용이라도 길이가 1m는 넘는다. 더구나 소아의 장은 성인보다 얇고 약하다. 내시경 검사 도중 자칫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라도 소아 내시경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수은건전지 삼키면 빨리 빼야

아이가 응급실에서 내시경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이물을 삼켜서다. 상당수의 이물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소화관을 내려가 대변으로 배설되지만, 꼭 내시경으로

빼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소화관으로 저절로 내려가지 못할 만큼 크거나 뾰족한 것,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몸속에 머물고 있는 것들은 빼주는 게 좋죠. 특히 수은건전지(장난감에 흔히 넣는 작고 둥근 건전지)를 삼켰다면 빨리 응급실에 가서 내시경으로 꺼내야 해요. 식도에 걸린 채로 그냥 두면 식도가 타거나 조직이 달라붙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배가 계속 아프거나 잘 먹지 못해 병원을 찾은 아이들 중에도 내시경 검사로 뜻밖의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어른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역류성식도염이나 위궤양, 위염, 과민성대장염 같은 병을 앓기도 해요. 대부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식사가 불규칙하고 야식을 습관처럼 해서 그렇죠. 담도폐쇄증과 맹장염, 복막염, 장중첩증 같은 응급질환을 먼저 명확히 진단해주는 것도 제 몫이죠."

이 교수가 만나는 아이들은 상당수가 소화기질환을 앓고 있다. 소화기질환은 식습관이나 영양상태와 직결된다.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아이들은 어딘가 이상이 있는지 의심해야 한다. 빨리 찾아내 치료하고 관리해주면 많은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먹었다 하면 토하고, 잘 삼키지도 못하고, 장 기능도 떨어져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아이도 있었어요. 제일 어려운 경우죠. 입원시켜서 수액 맞히고, 배에 구멍을 뚫어 영양을 보충해주면서 기다렸어요. 대견하게도 이겨냈습니다. 어린 아이를 치료하는 게 쉽지 않지만, 어려움을 이겨낸 아이가 건강한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보는 건 소아 의사들만의 특별한 경험이죠."

▲ 즐겁게 먹는 습관부터

먹는 걸 유독 싫어하거나 너무 가려 먹는 아이들도 자주 본다. 이 교수는 "병이 있어서라기보다 습관이나 교육, 또는 예민한 성격의 영향인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그래도 이런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의 스트레스는 말로 다 못한다.

"진료실 와서 목놓아 울거나 우울증까지 겪는 어머니들도 만났죠. 자녀가 주변 다른 아이들처럼 먹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님 스스로 아이들의 식사를 지도하는 방식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가령 새로운 음식을 먹일 때 부모는 대개 "몸에 좋다"거나 "친구들도 다 잘 먹는다"며 아이에게 "그러니까 너도 한번 먹어보자"며 숟가락을 내민다. 아이 입장에서 처음 보는 생경한 음식을 먹도록 강요 받는 셈이다. 좋은 느낌이 생길 리 없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의 맛이나 질감에 아이가 거부감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친근감과 호기심이 생겨 아이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나중에 제 아이가 먹는 것 갖고 속 썩인다면요? 신경 안 쓰는 척 한번 내버려둘 것 같아요. 그 전에 물론 과자랑 음료수부터 싹 치워야겠죠?"

글 :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

癌(암)

병원에 처음 오시는 암환자는 무조건 hi-pass~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hi-pass 시스템이란?

초진 암환자를 위해

당일 진료, 당일검사, 1주내 진단, 진단 후 1주내 입원,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고대병원만의 암환자 맞춤 진료 프로세스입니다.

*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서 상기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